

#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31, 룻 소개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세션 31, 룻기 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David Howard 교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룻기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제 동영상 강의를 따라오셨다면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이제 룻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논리적으로 사사기 이후에 나오며, 논리적으로 사무엘서를 앞선다.

그러나 우리는 몇 분 후에 정경에서 그 위치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기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이야기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캐릭터에 맞게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동정심 많은 캐릭터, 처음에는 슬픈 일이 있었지만 모두에게 잘 어울립니다.

이 작품은 문학 작품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단편 소설의 아름다운 예로서 세계 문학의 개요서나 컬렉션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사물의 서론과 함께 위기가 도입되고, 종말, 사물의 해결, 그리고 일종의 마무리가 되는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사건을 믿지 않더라도 이 작품은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문학적 이야기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 가족의 운명에 대해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것이 사사 시대에 일어난다고 들었고,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사사 시대의 끔찍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의 어둠 속에 빛나는 작은 희망의 빛이자 작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에 소극적이지만 확실히 확실하고 꾸준하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책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주인공 루스(Ruth)에게서 따왔습니다.

그 사람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는 사해 동쪽 모압 출신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혈통이나 출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시어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족.

그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히 루트는 그것을 확인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고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집안의 결혼이 이루어지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모든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저자는 익명입니다.

우리는 책 자체에 저자에 대한 기록이나 진술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 책의 저자에 관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는데, 이는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살았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나오미와 룯이라는 두 명의 강인하고 합당한 여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저자가 아마도 여성이었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추측일 뿐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책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러한 것들이 흥미로울지라도 성경은 어떤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단지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를 추측하는 것은 책에 대한 해석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것.

책의 연대로 볼 때, 책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기원전 1010년부터 약 97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다윗 시대에 그의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이 실제로 수세기 후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둘 다 외국인과의 통혼을 발견하고 대량, 본질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동전의 이면, 즉 타국인 아내의 포옹과 그녀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다른 책들에 대한 의도적인 논쟁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동전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대량 이혼의 이유가 있고, 여기서는 다루지 못하는 완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약간의 광고를 줄 것입니다. 나는 구약 역사서 개론(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이라는 교과서를 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포함한 모든 역사서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동전의 이면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외국인을 포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문학적 성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단편 소설로서 그 밑에는 그것이 허구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에 대해 역사적 단편 소설에 더 가깝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것이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그것이 허구라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책의 시작 부분에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들의 두 아들, 그리고 아내인 룯과 오르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족장 야곱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세심하게

정리한 것이므로 허구의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아름다운 문학적 문서입니다.

이 책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적한 것처럼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의 아름다운 스토리라인을 칭찬하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도달하면 룯과 나오미가 결혼한 장면이 나오는 4장 17절에서 일종의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그는 이새의 아버지이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17절 4장의 끝은 다윗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매우 짧은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베레스라는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는 중복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계보는 서술형 구조로 표현되지 않고 단지 목록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책의 원래 형태는 1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였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단편 소설 종류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계보가 때로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부록은 다윗과의 연관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나중에 추가되었으며, 가정은 이것이 매우 투박하고 서투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분류한 것입니다. 계보를 일축하고 이것을 책의 나머지 부분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불필요하고 투박한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책의 나머지 부분이 쓰여졌을 때 쓰여졌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쓰여졌는지 알 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것이 내려온 형식입니다. 책이 4장 17절에서 끝났다는 사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에서 제 주문은 주석가로서의 우리 임무는 주석가 모자, 통역사 모자를 쓰고 있다면 제가 할 일은 거기 있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하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기에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없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책의 일부로서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문학적인 방식으로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 1-5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름의 목록과 일종의 무대 설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이름의 목록이 있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맥락에 맞게 정리하여 목록으로 묶습니다. 1장-5장, 그리고 4장, 18-22장. 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추측과 그에 대한 많은 설명이 제공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책은 충성심과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일이 잘 진행되는 아름다운 책이며 우리는 확실히 그 렌즈를 통해 이 책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외국인을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에스라 느헤미야 논쟁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단편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즐거운 단편 소설이나 우리가 즐기는 일부 동화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충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가족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가족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 끝 부분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언급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 온 책들의 흐름을 보면 여호수아, 특히 사사기,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는 경건한 왕이 없었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막길에 이르렀습니다.

룯기는 개신교 정경에 이어서 우리를 장차 올 위대하고 경건한 왕 다윗의 혈통에 관한 한 이야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다음 책인 사무엘상에서 소개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책의 목적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책의 다윗적 성격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경건한 다윗 왕의 도래를 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 계시는 것처럼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족의 삶에 아주 많이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나타나기 몇

세대 전에 그 가족의 모습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정경에서 이 책의 위치를 보면, 개신교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우리 성경에서 이 책은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 책은 사사들이 재판하던 시대에, 그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것이 계속된다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즉시 배경을 배경으로 설정을 배치했는데 여기에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히브리어 정경에서 유대인 정경은 다른 위치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정경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 다섯 권의 책인 모세 오경, 모세서, 율법서,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믿든 말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옛 선지자라 부른다. 그리고 열왕기 바로 다음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열두서가 나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정경에는 8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십이사도서는 우리가 소선지서 열두 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음 섹션에는 처음 두 섹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모든 기타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으로 시작하여 잠언 또는 시편, 욥기, 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언 바로 다음에는 룯이 있습니다. 룯은 메길로라고 불리는 것 중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길로는 두루마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메길로트라는 책이 5권 있습니다. 이것들은 룯기, 아가, 또는 솔로몬의 노래, 전도서, 애가, 에스더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모두 다섯 권의 작은 책이며 유대 전통에서는 나중에 구약성경 이후 매년 축제의 주기 중 다섯 가지 다른 축제에서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뒤 칠칠절 곧 오순절에 룯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언 바로

뒤에 나온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성경이 있다면 룯기를 펼쳐 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잠언 31장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

잠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다소 유명한 방식으로 끝납니다. 잠언은 3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시로 끝납니다. 경건한 여인, 훌륭한 아내를 찬양하는 시, 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버전인 잠언 31장 10절에서 시작됩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신뢰합니다.

그에게는 곡식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그녀를 높은 천국까지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좋은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집에서, 성문에서 자신의 일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모두 좋은 일입니다. 내 버전에서 훌륭한 아내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경건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번역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10절의 그 용어는 10절의 그 용어가 에셋 하엘입니다.

에셋은 아내, 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당하거나 탁월하다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는 용기(valor)로 번역됩니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라는 용어에는 거기에 하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경건한 여인인 에스더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아내입니다. 이제 룯기로 돌아가서 3장에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할 때 룯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르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할 것입니다.

내 동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합당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버전에서는 그게 번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두 단어는 잠언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인 eset hayel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내 esv는 잠언에서 그렇게 번역하는데, 여기서 가치 있는 여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링크를 표시하기 위해 두 단어를 같은 방식으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잠언이 이상적인 여성, 이상적인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어 정경의 바로 다음 책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룯이 그러한 탁월함과 합당함의 모범임을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어 정경이 배치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연결입니다. 사사기도 20장에서 같은 단어인 하엘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와 같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책을 배치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몇 페이지를 뒤로 넘기고 싶다면 베냐민 사람들과 사람들을 얹어매는 이 내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베냐민 사람들은 용감한 전사이자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44절에는 베냐민 사람 만 팔천 명이 쓰러졌으니 다 용사요 하엘 사람이더라. 그래서 46절 끝부분에도 같은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룯이 전사 유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말장난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사사기의 끝과 일치합니다. 그녀는 용맹하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룯에게 있어 큰 용맹과 가치와 가치를 지닌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언에 나오는 여인처럼 미덕과 모범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경에서 책의 위치에 관한 몇 가지 사항입니다.

책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혼란의 시간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쇠퇴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010년경에 왕위에 오른 다윗 왕으로부터 두 세대가 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후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로부터 수백년 전인 1400년, 1350년경에 시작됩니다.

모압 족속은 롯이 태어난 곳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리적으로 이웃이었지만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모압은 원래 롯의 아들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모압은 창세기 19장의 불행하게도 롯의 딸과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압인과 이스라엘인은 말하자면 먼 사촌관계에 있는 셈입니다. 성경을 통해 두 그룹 사이에는 꽤 많은 맥락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민수기 21장에서 모압을 장악하고 있던 아모리 왕 시혼과 충돌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우리는 에글론에 대해 조금 읽습니다. 에훗이 왼손으로 배를 찔러 죽인 모압 왕.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롯은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하에서는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갈등이 나옵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모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등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이어서 책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분을 투자하고 싶은 특별한 일은 Leveret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제, 처남을 의미하는 라틴어 레버(laver)에서 유래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롯과 보아스가 결혼을 준비하는 장면에는 약간의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는 이 사람이 롯과 결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권리도 가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롯기의 많은 논의에서는 오경에서 실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지렛대의 법칙이 실제로 여기 롯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요, 몇 가지 유사한 비유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경에는 이에 대한 배경이 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5장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부의 처남이 그녀와 결혼하고 그녀를 위해 아이, 곧 아들을 낳을 의무가 있는 실제 레버레 결혼이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문맥을 살펴보고 그것이 룯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아니면 룯기와 어떻게 관련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입니다. 형제들이 동거하다가 그 중의 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지니라 하였느니라.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즉, 여자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의 형제 중 한 명과 재혼해야 하며, 가족 밖에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는 처남의 의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 뒤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밤(yabam)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여기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는 이 처남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창세기 38장 8절에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남편이 죽자 유다의 아들이 죽자 그에게 와서 그에게 똑같은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야밤입니다. 룯기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룯기의 연구나 주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연결은 실제로는 정확한 연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 구절을 계속 읽어보자. 그러므로 신명기 25장 6절. 그 여자가 낳은 첫째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7절은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만일 남자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려오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기를 거절하니라

그는 나에게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만일 그가 계속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여자를 데려가고 싶지 아니하니이다 하라.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로 올라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극적인 장면입니다. 롯기에서는 롯이 가까운 친척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형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은 형제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듯이, 롯의 장소는 가까운 친척의 장소이고, 롯에서는 종종 친척이나 친척 구속자 또는 단지 구속자로 번역됩니다. 거기 말이 달라요.

그 단어는 고엘(goel)인데,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척 구속자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25장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지만 레위기 25장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레위기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에는 이것과 관련된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의 부분, 즉 고엘의 동사형, 재산의 구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5-46절에는 가난한 친척이나 가난한 형제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장면이나 그 두 그림은 룯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된 단어가 정확히 같은 고엘이나 동사 형태인 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이 실제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관여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는 나그네와 나그네로 나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소유한 모든 땅에서 구원을 허락하리라 하셨습니다. 땅의 고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25절)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았으면 그의 가장 가까운 구속자 곧 명사형인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그리고 그 장을 통해 계속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땅을 무르기 위해 누군가가 들어와 값을 지불하거나 자기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의 소유로 팔았던 사람을 무르게 하고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추진력입니다.

이는 재산 소유권 또는 최소한 청지기 직분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땅을 소유하시지만 그 땅을 사람, 개인, 지파, 이스라엘 땅에 맡기십니다. 35절 이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줄 땅이 없어 자기를 팔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도 그와 같으니 매 49년째되는 희년에 그들은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 네 형제가 가난하여 너와 함께 살 수 없게 되거든 그를 나그네와 나그네와 같이 부양하라.

그는 당신과 함께 살 것이며 그에게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는 그가 희년까지 너희와 함께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나가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속박에서 구속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룯기에서 볼 수 있는 의식이나 제도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룯기 3장과 4장에서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인 이 친척 구속자에게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롯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롯에게 와서 그가 밭을 사려고 하면 그 밭을 얻을 뿐만 아니라 롯도 흥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경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율법의 확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관습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보아스가 그냥 넣어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척이 동의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게 하면 내 상속 재산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 즉 여자와 함께 재산을 구속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두 구절의 요소가 모두 있습니다. 여기 누군가에 의해 구속된 과부가 있는데, 이는 신명기 구절과 어떤 면에서 일치합니다. 여기에 레위기 구절을 반영하는 땅의 구속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정확 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다른 단어이고, 레위기에서는 여자가 흥정에 동참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의 지렛대나 이런 종류의 관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롯에 대한 아주 많은 연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 중 어느 것과도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롯기에서 발견하는 그 자체로 새로운 종류의 것입니다. 아마도 수세기에 걸쳐 이러한 다른 기준 중 일부는 오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관습으로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이 책의 신학이라 부를 수 있는 것, 또는 이 책에 담긴 몇 가지 위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이 책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확고하심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짧은 책이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85절에 불과하지만 그 중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책의 4분의 1 이상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 중 21번의 경우에 등장인물의 입에서 신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등장인물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둘러싼 내러티브 프레임워크, 즉 책의 저자는 인물에 대해 글을 쓸 때 신을 두 번만 언급합니다. 책의 맨 처음에 한 번, 1장 6절. 맨 끝에 한 번, 14장 3절. 그렇지 않으면 등장인물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관련 인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책 속의 인간 등장인물들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과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잘 잡혀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종류의 생각은 아마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요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아마도 책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꾸준하고 조용한 것이지만, 내가 말했듯이, 책의 저자인 화자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그런 식으로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실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 번 우연의 일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장 3절에서 룯에 대해 보면, 알고 보니 그녀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아,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와 비슷해요. 다른 역사서에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거나 그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3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룯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 딸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행하게 하실 때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많은 주석가들은 룯기를 에스더서와 비교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매우 많이 존재하고, 일종의 배경에 있고, 섭리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에스더서에서는 확실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룯기에서도 하나님의 숨김이 이 책의 의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점은 실생활에서 때때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지, 어떤 일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지, 어쩌면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인지 항상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모든 일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일을 그냥 놔두시고, 그분의 손은 그다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확실히 한발 물러서서 그 말이 등장인물들의 입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총을 위해 일어난 공정한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하여 세 번째 퍼즐 조각은 이 책이 내가 부르고 싶은 더 크고 더 넓은 군주제 신학에 실제로 들어맞는다고 많은 논평자들과 함께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별도의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을 보지 못했다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7장과 35장에서 아브라함 계통에 왕들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계통에 왕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경건한 왕의 특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경건한 왕은 주위 나라들의 왕들과 같아서 안 됩니다. 오히려 경건한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매우 반문화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왕은 말의 수를 늘리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거나 외국의 동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사사기의 배경이 됩니다. 상황이 지금까지 너무도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사사기의 저자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눈에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분산된 왕이 아니라,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경건한 왕이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룯기는 그러한 패턴에 꼭 들어맞으며, 특히 다윗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이 책의 주석을 살펴보면서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룯기 4장을 펴십시오. 그 전에, 책의 시작 부분에서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그들은 베들레헴과 유다 출신의 에브랏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읽으면서 우리는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은 다윗의 출신지이며 유다에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49장에서 왕이 그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유다에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는 유다 가문, 베들레헴 가문, 그리고 물론 외국인인 룯이 이 가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책 끝 부분에서 이 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여러 세대를 거쳐 22절에 이르기까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무엘상하장에 등장할 경건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페레즈는 누구입니까? 글썄요, 우리는... 그는 12절에서 언급되었으니 좀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유다의 아들 다말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유다를 찾아와 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남의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래서 그녀는 매춘부로 변장하고 그를 가둔다.

그가 그 여자에게 들어오매 그 여자가 임신하여 두 아들을 낳느니라. 페레즈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우회적으로 유다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이는 다윗을 창세기 49장, 특히 10절에서 유다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시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소유에게 오기까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의심할 바 없이 다윗을 언급하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리스도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구약성경에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족보적으로 다윗과 유다를 연결하고 창세기 49장에서 볼 수 있는 유다에 대한 약속도 연결합니다. 둘째, 우리는 11장 4절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모두가 문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로다 하니 보아스와 롯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오는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물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레아는 유다의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종류의 우회 방식으로 여기 그림에는 이스라엘 집을 함께 건설한 유다가 있습니다. 에브라다에서 의롭게 행하시고 베들레헴에서 명성을 얻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통해 비스듬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12절,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명시적으로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의 끝 부분에 있는 몇 가지 직접적인 증거, 일부 간접적인 증거가 다윗과 이때의 유다 사건 및 유다에 대한 약속을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롯, 나오미, 보아스는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대한 약속과 몇 세대 후 다윗과 그의 가족의 탄생 사이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롯기가 사사기의 신학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고 경건한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기는 우리에게 다윗의 가까운 조상들의 삶에 대한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위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윗이 도착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 아니라, 가족의 충성심 등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경을 관통하는 군주제 신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제가 이 책에 대해 소개 측면에서 말하고 싶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책의 실제 장별 설명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있다면 1장을 펴서 각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세션 31, 룯기 소개입니다.